



17일 오전 6시쯤 수월봉 해안 산책로 일부 절벽 단면이 무너졌다. 이번 붕괴사고로 산책로 2km 구간이 출입통제됐다. 김채현기자

# 수월봉 해안 산책로 절벽 '와르르'

어제 오전 가로·세로 6.5m, 폭 0.5m 규모 무너져 환경적 영향으로 붕괴 추정... 인명 피해는 없어 도유산본부 현장 출입 통제... "문화재청과 협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자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수월봉 지질 트레일 코스(제주올레 12코스)에서 일부 절벽 단면이 무너져 내렸다. 안전상의 이유로 봉괴 지역이 서부터 자구내포구 방향으로 약 2km의 산책로가 통제됐다. 17일 오전 6시쯤 제주시 환경면 수월봉 입구 인근의 영일해안 산책로에 있는 화산쇄설층 절벽에서 가로·세로 6.5m, 폭 0.5m 규모의 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근처 펜스를 덮쳤다. 이번 붕괴는 쇄설층으로 약한 지층이 강수 등의 환경적 영향을 받아 자연적으로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야 했다. 60대 A씨는 "아름다운 지층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산책을 즐길 수 있어 1년에 대 여섯번은 이곳을 찾곤 한다"며 "출입이 통제돼 산책을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아쉬워했다. 또다른 관광객 40대 B씨는 "각종 매체를 통해 수월봉의 단층이 아름답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더니 출입 통제가 이뤄지고 있었다"면서 "누가 다치지 전에 빨리 조치가 이뤄져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산 폭발로 인해 발생한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수월봉의 지층은 파도나 바람 등에 의해 쉽게 침식되는 특성을 가져 이전에도 낙석 현상이 종종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서귀포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의 영향으로 20m 높이 절벽에서 돌들이 떨어지기도 했다. 김채현기자

## 학생상담 지원 자문단 운영

제주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학생상담 지원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서 위기 학생 관리 및 지도에 대한 자문을 집중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자문위원 10명과 전문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일대일 멘토링, 수시상담, 학교 방문 자문활동을 수행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다양한 위기 사례에 대해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다혜기자 dhkang@ihalla.com

# 재판 지연 해소 대법원의 '공여지책'

## '법원장 재판' 제주서도 시작... 김수일 법원장 "법관 정원 증원 시급"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법원장이 직접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장 재판'이 제주지역에서도 시작했다. 17일 법복을 입고 501호 법정에서 열린 김수일 제주지법법원장은 민사7부로 재배당 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아 첫 심리를 진행했다. 민사7부는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올해 2월 신설됐다. 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기 때문에 '법원장 재판부'라고 불린다. 대법원은 법관 부족으로 전국에서 재판 지연 문제가 잇따르자 해결 방안으로 각급 법원장을 재판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김 법원장이 심리한 사건은 2019년 9월 제기된 공사대금 분쟁으로, 아직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김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민사7부에는 현재 총 11개 사건이 재배당됐으며, 소송이 제기된 지 짧게는 2년 6개월에서 길게는 5년까지 흐른 것들이다.

김 법원장은 "법원장으로서 판사 본연의 재판 업무를 하게 돼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다시 재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밝혔다. 또 그는 "법원장 재판부 신설은 일선 재판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각 재판부도 재판 지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직접 재판을 하면서 지연 원인을 파악해 사법행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겠다"고 전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된다면 궁극적으로 법관 증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며 "법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한 개정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사법연감에 따르면 각 법원이 접수한 인구 1000명당 폭행범죄 사건 인원은 제주지법이 0.71명



17일 첫 심리를 진행한 김수일 제주지법법원장.

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경제범죄 사건은 제주가 1.27명으로 서울 중앙지법 (1.70명), 부산지법 (1.43명)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많았다. 또 제주지법은 교통범죄 사건 접수 인원도 1000명당 1.39명을 기록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제주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뒷걸음질'

### 구매율 20% 수준... 2021년 이후 되레 하락세 타 지자체는 지난 2018년 이후 50% 이상 구매

제주도를 포함해 도내 공공기관에서의 녹색제품 구매율(20% 수준, 전국 중하위권)이 전국에 비해 저조한데다 최근 몇 년간은 성장보다는 되레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 문제다. 이에 '지속가능한 제주'를 지향하는 도정의 정책에도 스스로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도와 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최근 3년간을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2021년 23.3%, 2022년 18.7%, 2023년 18.5%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해 이들 3개 기관은 녹색제품 316억1600만원을 포함해 총 1709억7500만원을 구매했다. 도는

611억2500만원 중 116억3100만원(19.0% 녹색제품 구매율 이하 생략), 제주시는 692억3200만원 중 121억6300만원(17.6%), 서귀포시는 406억1800만원 중 78억2200만원(19.3%)을 각각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의 공공기관에서의 녹색제품 구매율은 친환경·기후위기 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 범위를 확대하며 2018년 이미 50% 이상을 점유했다. 실제 경기도의 지난해 녹색제품 구매율은 60.4%로 제주보다 3배가량 높다. 하지만 제주를 포함해 일부 지자체에서 구매를 줄이고 있어 국정과제의 하나인 탄소중립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2016년 1월

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고 있지만 최근 구매율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제주도교육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에너지공사 등 도내 공공기관 대부분은 구매이행계획에 견줘 구매실적이 모두 앞섰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의료원, 제주대학교병원, 제주신용보증재단 등은 이행계획을 지키지 못했다. 녹색제품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저탄소인증제품)이다. 에너지·자원 투입, 온실가스 등의 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및 '녹색제품구매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처벌 규정은 없어 사실상 권고에 그치고 있다. 백금기자

###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사·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반
정액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111,000원 보청기 제품비용 후기 적합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 정액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만의 고유 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쾌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

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분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분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들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분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영리기업'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정심사 심의번호 2020-GN180079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박사  
청각학석사  
청년 어재활사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